

한국 정부, “수소차 대중화한다” 관 깎아준 정부

한국 정부가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를 대중화하겠다고 20년 이르는 대대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1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까지 1,800대(내수 893대)에 불과한 수소차 보급 대수를 2022년 8만1,000대(6만 7,000대), 2030년 180만대(85만 대), 2040년 620만 대(290만 대)까지 늘리고, 이를 위해 현재 14개뿐이던 수소 충전소도 2030년 660개, 2040년 1,200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한해 국내에만 수소차 4,000대를 신규 보급한다. 지금까지 팔린 누적차량보다 네 배 많다. 지난해까지는 총 893대가 판매됐다. 정부 지원 규모도 그만큼 늘어난다. 수소차는 비싼 가격 탓에 정부 구매보조금 지급이나 공공부문 매입이 전체 판매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현대차가 한국에서 판매중인 수소차 넥쏘 가격은 7,000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총 3,600만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은 수소차에 1대 당 2,250만 원을 국비에서 지원해준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1,000~1,350 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충전소도 연내 전국에 86개 신설한다. 기존 14개를 포함해 100개를 채우



▲현대자동차가 판매중인 수소차 ‘넥쏘’

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년 후 도로 위 차량의 10% 가량이 수소차가 될 것으로 보고 충전에 필요한 수소를 국내외에서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세웠다.

대대적인 초기 지원으로 자동차 회사가 수소차 양산 체제를 갖추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면 이후부터 시장 스스로 커 나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께 10만 대 양산 체제가 갖춰지고 7,000만 원인 현 수소차 생산단가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세계 최고의 수소차 기술력을 보유한 현대차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모델인 ‘투싼 FCEV’를 내놨다. 지난해 초 신모델 ‘넥쏘’를 내놨다. 한번 충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595km(美 EPA 인증 기준)를 달린다. 전체 숫자 자체가 작기는 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인 수소차의 절반은 한국 산이다.

부동산가격 하락에도 매매 부진 전세대출은 증가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지금 당장 주택을 구입하기보다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며 전세로 머무는 대기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집값이 급등할 때는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며 달려붙었던 추격매수와는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7일 ‘경향신문’이 한국감정원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9% 하락했다. 지난해 11월12일(-0.01%) 이후 10주 연속 하락세다. 대출 규제와 금리 추가 인상, 공시가격 인상 움직임 등이 맞물리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강남구와 양천구로 각각 0.21% 떨어졌다. 이어 강동구(-0.16%), 송파구(-0.15%), 동대문구(-0.11%) 등의 낙폭이 컸다.

금천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0.01% 상승으로 전환했으며, 종로·구로구는 하락세에서 보합으로 돌아섰다.

경기 지역도 마이너스 0.05%를 기록했다. 특히 광명시는 마이너스

0.24%로 낙폭이 컸다. 광명·하안동 일대의 재건축·재개발 투자 수요가 주춤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지방도 마이너스 0.08%로 전주 수준을 유지했다. 세종 아파트값이 하락세에서 보합으로 전환했으나 5대 광역시에서는 하락폭이 더 컸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마이너스 0.07%를 나타냈다.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지난해 4분기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늘었다. 주요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은 모두 62조9,711억 원으로 집계됐다. 3개월 전인 9월 말 57조9,577억 원에 비해 5조134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전 분기 대비 전세자금대출이 5조 원 이상 늘어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강력한 대출 규제로 매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전세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신규 입주물량의 증가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물량이 늘어난 것도 전세자금대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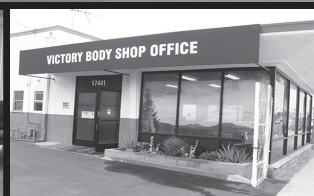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